



시기동 주민자치회, 어르신 삼계탕 나눔 봉사

시기동 주민자치회(회장 고광호)는 7일 관내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삼계탕 무료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긴 장마가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정성과 사랑을 담아 삼계탕을 대접하고 관내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고광호 시기동 주민자치회장은 "무더위를 맞아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기동 주민자치회는 분기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 등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제1회 시기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4년 주민자치사업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수=고광호 기자



고창경찰,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범죄예방 진단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해수욕장 2개소(구시포·동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진단은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방법사책에 반영하는 등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수욕장은 15일까지 개장할 예정이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할 예정이다. 이석현 서장은 "피서객 관광객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전안정 여름피서자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에이엠특장, 잼버리 참가자에 얼음 스카프 전달

특장차 제조 전문기업인 (주)에이엠특장은 7일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자들을 위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얼음 스카프 1,000개(35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한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온열질환자가 1,400여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이엠특장은 벽골제, 금산사, 백구 스마트팜 등 김제를 방문하는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얼음 스카프를 지원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 계남면-장계파출소,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

장수군 계남면(면장 최재원)은 지난 3일 민원 담당 공무원과 장계파출소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 진정, 중재,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제압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실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각각의 임무 현황 파악, 긴급 상황 시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경찰의 신속 출동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사시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고광호 기자

부음
▲박용근(전북도의회 의원)씨 모친상= 빈수: 장수군 보건의료원장제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연락처: 063-351-8060

익산형 복지레이더 역할 '톡톡'

시 29개 읍면동에 고독사 예방·위기가정 발굴 박차
시 이웃애(愛) 돌봄단, 주민현장 중심 복지 안전망 구축

'이웃애(愛) 돌봄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 주민들을 포착해 안전하게 지키는 익산형 복지레이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29개 읍면동에 민·관 협력 돌봄단 활동을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정 발굴 박차를 가하며 마을 주민현장 중심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돌봄단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신청, 긴급복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다이용 나눔공간 등 현장에서 약 1,690여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중포면' 돌봄단은 자녀가 타지에 있어 거의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반찬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고독사를 예방했다. 마동은 긴급하게 열악한 주거지를 변경해야 하는 대상을 맞춤형복지계와 연계해 이사를 지원해 거주 안전을 확보했다.

오산면은 전화가 없는 고독사 의심되는 독거어르신에게 유선 전화를 설치해 청장년 가구와 유선·으로 안부 살핌을 지속했다.

상삼동 돌봄단은 5월 중 실시한 짜장면 나눔 행사 시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식사 및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등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웃애(愛)돌봄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역복지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장 부녀회원, 지역주민 등 총 150여명의 봉사자들이 29개 읍면동



에서 지역복지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447명의 건강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은 "행정에서 직접 일일이 방문하고 관리하기 힘든 우리 동네 복지사각지대를 지역 주민이 앞장서서 발굴하고 관리한다"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높이고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조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강희성 호원대 총장, 스포츠단 훈련 학생 격려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이 여름방학 중 본교에서 훈련하는 스포츠단 학생들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강 총장은 7일 짙는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 중인 호원대 소속 운동부 학생들과, 합숙 훈련을 받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찾아 격려, 훈육을 주고 있다. 이번 격려 방문에서 스포츠단 학생들의 간단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날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공금 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강희성 총장은 "폭염경보에도 훈련 중인 운동부 학생들에게 잠깐이라도 시원한 차를 마시게 하는 마음에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우리 학생들이 지금 흘린 땀의 결실이 머지않아 좋은 결과로 드러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호원스포츠단은 1990년 우수부 창단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는 야구선수단, 2004년 축구선수단, 2005년 태권도선수단, 2013년도 펜싱선수단 창단, 2018년도 씨름선수단을 창단했으며, 작년 복싱선수단을 추가 창단했다. /장은성 기자

폭염에 지친 시민 응원... 익산 곳곳 얼음생수 나눔 잇따라

인화동·남중동·여양동 등서 행사 추진

익산시 곳곳에서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얼음생수를 나눠준다. 인화동 기관단체연합이 7일부터 인화동 익산농협 옆 동익산 버스승강장에서 얼음생수 무료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해석), 통장협의회(회장 박현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남기),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소현)가 참여하며, 1,500개의 얼음생수를 준비하며 매일 150개씩 열흘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4개단체 회원들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얼음생수를 직접 나눠주고, 폭염대비 행동 요령과 무더위쉼터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같은날 남중동 지역복지 활동기대포 박양목, 황의성)도 생수 나눔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지역 내에서 기부받아 진행되는 생수 나눔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지역복지 활동기대들은 생수를 냉동 관리하여 매일 100개씩 나누고, 또한 맞춤형복지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을 위한 포유(far yau) 포(far) 사업을 홍보한다. 이에 앞서 어양동봉장협의회(회장 원영이)와 주민자치위원회(회장 황상복)는 지난 4일부터 어양동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얼음생수 제공했다. 이번 생수 나눔은 31일까지 4주간 하루 120개씩 시원한 얼음생수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비치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꺼내어 마실 수 있다. 또한 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엄미리, 백명순)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이종우), 봉장협의회(회장 최인휴), 자율방범대(대장 왕갑희), 부녀회(회장 이수연) 5개 지역단체도 매일 100개 한정으로 얼음생수를 제공하고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탁시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왕갑



희 대장은 얼음생수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왕궁빠다구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대량의 생수를 안전하게 보관할 냉동창고를 대여해줬다. 동산동 봉장협의회(회장 이명숙)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심현무) 회원들은 동산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아이스박스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생수 나눔행사를 오는 11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근)는 7일 폭염에 대비해 얼음 생수와 부채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삼기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눈, 발, 족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원한 얼음 생수와 함께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이 적힌 부채를 나눠주었다. 동시에 독거노인 등 무더운 여름철 건강이 염려되는 주민들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현을 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이같은 봉사들이 익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장성태 한국엔지니어링 전복지회장의 사랑 나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장성태 전복지회장은 최근 익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허전 익산시 부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성태 전복지회장은 "실직이나 휴·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수해 재난으로 힘들었지만 지원해 드린 성금이 조금이라도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며 "수해 피해로 지금은 위기상황이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성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태 전복지회장은 "이웃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밝아진다고, 이번 기부를 통해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원원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한 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동계농협-운봉농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

순창군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과 남원시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은 지난 4일 순창군청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교차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이병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양영석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양준섭 동계농협 조합장, 오용담 운봉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조합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300만원을 상호교차 기부하며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순창 동계농협 양준섭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농촌과 농민에게 힘이 되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 운봉농협 오용담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두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기부해주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장수경찰 여성계, 지역아동센터 찾아 간담회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4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 지역 특성상 청소년들이 방학기간동안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에 따라 미안·악물 오남용 등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에서 미약음료를 배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며, 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이 타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타인이 주는 음료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오픈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낯선사람에게는 대화 및 개인정보 등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장수군에는 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199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및 급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고광호 기자